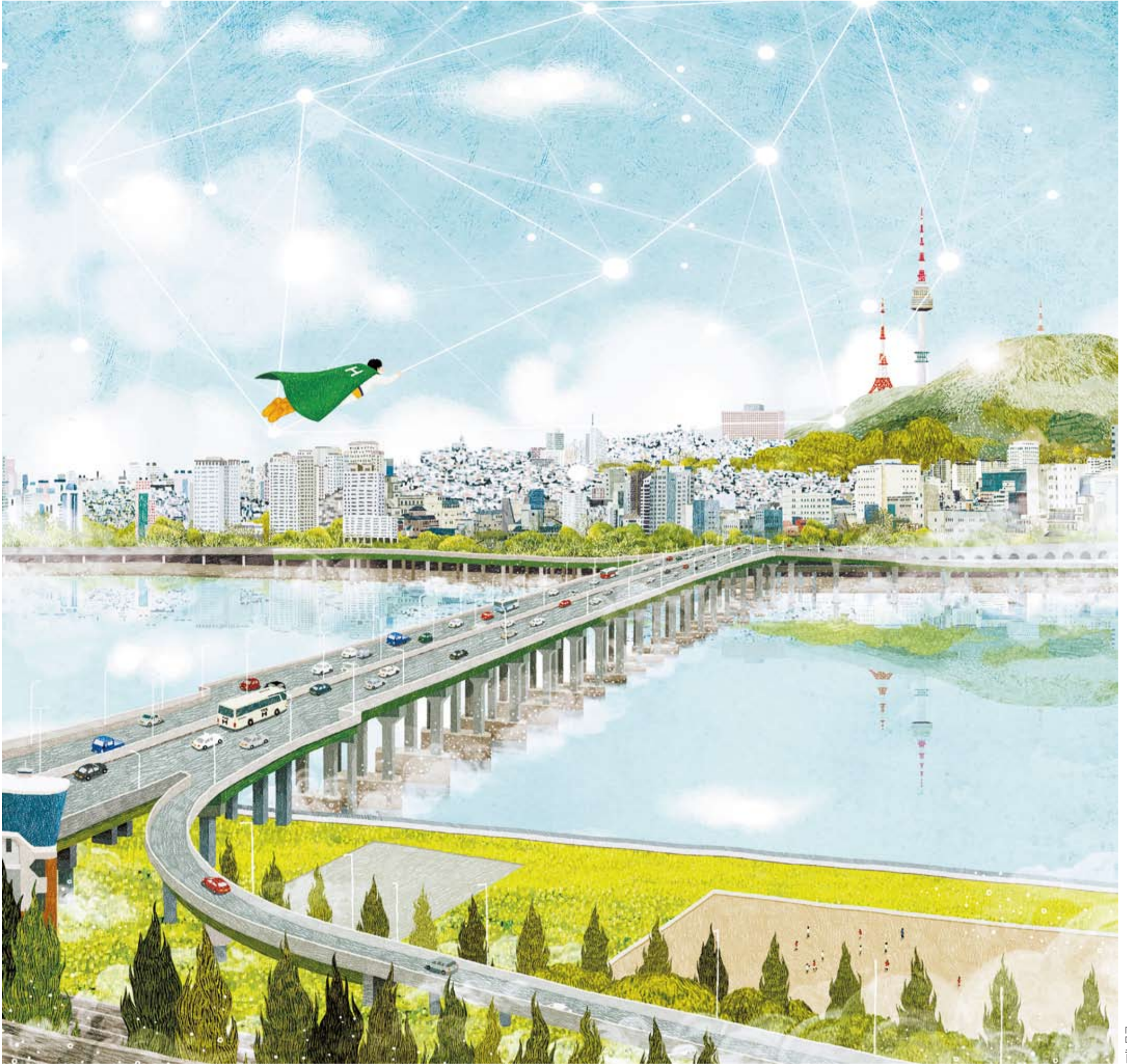


HYUNDAI E&C TODAY

Vol 383

2020 / 2 / 20 THU

발행인 박동욱
편집인 한성호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신고번호 종로 다0049



현대건설

ZOOM IN + H INFRASTRUCTURE WORKS

Hyundai E&C is near you 현대건설, 출근길을 부탁해!

Hyundai E&C has successfully conducted a variety of infrastructure projects,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day-to-day life of Seoul citizens. Starting with the redevelopment of the Hangang Bridge in 1958, Korea's primary builder was in charge of the construction of 13 bridges including the Yanghwa Bridge (1965), the Hannam Bridge (1969), the Seongsan Bridge (1980) and the Guri-Amsa Bridge (2014). Among its representative construction projects are the Gyeongbu Expressway (1970), the Gyeongin Expressway (1968), the Singal-Saemal section of the Yeongdong Expressway (1971) and the Seoul-Namyi section of the Jungbu Expressway (1987) as well as the second Yeongdong Expressway (2016). This edition of Hyundai E&C Today takes a close look at the technological prowess of Hyundai E&C embedded in convenient infrastructure. [▶ Continued on page 4, 5](#)

매일 오가는 출퇴근길.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도로, 지하철, 다리 중 상당 부분이 현대건설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현대건설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각종 인프라 공사를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중에서도 서울 시민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한강 교량'은 현대건설의 대표 프로젝트. 현대건설은 한강인도교 재건사업(1958, 현재 한강대교)을 시작으로 양화대교(1965), 한남대교(1969), 성산대교(1980), 구리암사대교(2014) 등 한강의 13개 다리를 건설했다.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한 경부고속도로(1970), 경인고속도로(1968), 영동고속도로(1971, 신갈~새말), 중부고속도로(1987, 서울~남이)뿐 아니라 ITS(지능형 교통제어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이 총망라된 제2영동고속도로(2016) 역시 현대건설의 대표 프로젝트다. 이번 호 <사보신문>에서는 우리의 '출근길 도우미'이자 '세상을 잇는' 편리한 인프라 시설 속에 숨겨진 현대건설의 기술력을 들여다봤다. [▶ 관련기사 4, 5면](#)

Hyundai E&C jointly receives Panama's biggest infrastructure project

Tapping into the new market with the construction of a 25-km monorail



Our company sets out to enhance our position in the global market by making inroads into the Panamanian construction market. Hyundai E&C's consortium has won a 2.81-billion-dollar order worth

approximately 3.3 trillion won from Metro de Panama S.A. to build Line 3 of the Panama Metro (51 percent), together with Hyundai Engineering (20 percent) and POSCO E&C (29 percent). The consortium of Hyundai

E&C topped the list of the bidding evaluation results released in November 2019, beating leading global competitors in all areas of technology, commerce and finance. The consortium submitted a more advantageous

financial proposal than its rivals through building a closer partnership with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leading global banks. The project aims to construct a

25-kilometer monorail that connects Panama City with the western part of the capital. It is scheduled to be finished in 54 months from the date of the construction commencement. The Panama Metro Line 3 project is the country's largest infrastructure construction. Our company has received accumulated orders of about 3.8 trillion won so far this year, including orders from Qatar's Lusail Plaza Tower PLOT 3 and 4 (worth 1.2 trillion won), Singapore's Punggol Sports Center (worth 190 billion won), and Algeria's combined thermal power plant (worth 674 billion won) that it won in January.

3조3000억원 규모의 파나마 역대 최대 인프라사업 수주

파나마 신규 시장 첫 진출 ... 파나마시티와 수도 서쪽 잇는 25km 모노레일

우리 회사가 파나마 신규 시장 진출의 폐거를 이루며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월 4일 3조 3000억원(약 28억1100만 달러) 규모의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공사(Line 3 of the Panama Metro)를 수주했다. 현대건설(51%, 약 1조7000억원)·현대엔지니어링(20%)·포스코건설(29%)

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앞서 지난해 11월 공개된 입찰평가에서 기술·상업·금융 전 부문에 걸쳐 유수의 글로벌 경쟁사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및 글로벌 은행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경쟁사보다 유리한 금융안을 제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파나마 메트로(Metro de Panama S.A.)이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파나마시티와 수도 서쪽을 연결하는 총 연장 25km 모노레일 건설 공사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4개월이다. 파나마에서 추진된 인프라 건설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로, 파나마 정부는 메트로 3호선이 완공되면 파나마

시티 서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지난 1월 카타르 루사일 플라자 타워 PLOT 3, 4(약 1조2000억원 규모)와 싱가포르 풍골 스포츠센터(약 1900억원 규모), 알제리 복합화력 발전소(약 6740억원) 수주 등 현재까지 누적 수주액 약 3조 8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Hyundai E&C offers free masks to subcontractors' workers at all domestic sites

Starting on February 10, our company provided free KF94 and KF 80 respirator masks for Hyundai E&C employees and subcontractors' workers at all our domestic construction sites. As part of the effort to prevent and stop the spread of coronavirus, our company doled out masks and hand sanitizers to about 21,000 employees and workers of our



subcontractors working at 130 domestic construction sites.

전 현장 협력사 근로자 대상으로 보건 마스크 무상 지급

우리 회사가 2월 10일부터 전 현장 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KF94/KF80)를 무상 지급했다. 우리 회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차원에서 130여 국내 현장의 2만1000여 명이 달하는 직원 및 근로자에게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을 배포했다. 회사 관계자는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내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위생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현장 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근로자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교육도 적극 실천 중이다. 교육은 한국어·영어·중국어 등 다국어로 진행된다.

Hyundai Hillstate Volleyball Team takes up the running

Hyundai E&C's volleyball team continues its winning ways, helped by the strong play of Yang Hyo-jin who became the first women's volleyball player in Korea to achieve 5,500 points. Suwon Hyundai E&C Hillstate won the third-round match 3-0 against Gyeongbuk Gimcheon Hi-pass in the Dodram 2019-2020 V-League on February 11 and clinched the title. That day, Yang became the first player in



V-League women's clubs who achieved 5,500 points with 11 from the match.

현대건설 배구단, 선두질주 ... 양효진 여자부 첫 5500점 기록

현대건설 배구단이 여자부 최초로 5500득점(5501점)을 달성한 센터 양효진의 활약을 앞세워 '1위'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 배구단은 2월 11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19-2020 V리그 홈경기에서 한국도로공사를 세트 스코어 3-0(25-22, 25-17, 25-20)으로 눌렀다. 양효진 선수는 이날 11점을 올려 개인 통산 5500득점

(5501점) 고지를 밟았다. V리그 여자부에서 5500득점에 성공한 선수는 양효진이 유일하다. 또한 현대건설 배구단은 2월 18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홈경기에서 IBK기업은행을 세트 스코어 3-0으로 눌렀다. 이날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추가한 현대건설은 승점 5로 2위와의 격차를 5점으로 벌리며 선두 지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yundai E&C signs MOU with Hyundai Electric



Our company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Hyundai Electric & Energy Systems on February 3 to cooperate in the fields of next-generation electric power infrastructure and new energy businesses.

The two companies agreed to seek a close cooperation in three areas such as renewable power generation and new energy businesses, development of a smart power system, and substations for new power transmission.

현대건설-현대일렉트릭 '전력인프라 및 에너지신사업' MOU

우리 회사와 현대일렉트릭이 2월 3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 사옥에서 '차세대 전력인프라 및 에너지신사업 분야의 공동협력 추진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우리 회사 에너지사업부장 손준 전무와 현대일렉트릭 배전영업부문장 박종환 전무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신재생발전 및 에너지 신사업 ▶스마트 전력시스템 개발 ▶국내 신송전 변전소 사업 등 총 세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을 모색하기로 협의했다. 향후 양사는 신재생발전의 새로운 사업 참여 기회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관련 전력기술 사업모델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상반기 교육생 모집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이 '2020년 상반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건설사법관리 ▶Global HSE ▶건설장비정비관리 ▶플랜트 설비관리 ▶건설공사 관리 ▶스마트에너지 ▶BIM건설관리 ▶플랜트전기 ▶건설품질관리 등으로, 5~6개월간 진행되는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과정 최종 수강 1회에 한해 교육비와 교재비, 실습비 등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 상실했던 실업 상태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 신청은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GROUP NEWS

Hyundai Motor's 17 models selected as the safest vehicles by IIHS in the U.S.

The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IIHS) announced on February 13 that Hyundai Motor Group tied for the most combined Top Safety Pick+ and Top Safety Pick-rated vehicles in the automotive industry. Three Hyundai models became Top Safety Pick+ winners, and 14 models won Top Safety Pick awards. Among the award winning models, the Hyundai Nexso and the Genesis G70 drew special attention by being not sold with anything other than "good-rated headlights" defined by the IIHS.

현대자동차그룹 미국 IIHS 충돌 평가 최고 안전한 차로 17개 차종 선정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가 2월 13일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가장 안전한 차량에 부여하는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op Safety Pick+)'에 3개 차종이, '톱 세이프티 픽(Top Safety Pick)'에 14개 차종이 선정됐다.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받은 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소 ▶제네시스 G70 ▶G80 등 3개 차종이다. 이 중 넥소와 G70은 IIHS가 정의한 '우수한 등급의 전조등(good-rating headlights)'을 모든 트림에 기본 장착해 주



Korean Culture

'Parasite' and Korea triumphant

Director Bong Joon-ho cemented his place in Korean and international film history when his "Parasite" won four Oscars at the 92nd Academy Awards on Sunday: Best Picture, Best Director, Best International Feature Film and Best Original Screenplay. It was also the first foreign language film to ever receive the Best Picture award. "Thank you," Bong said after winning Best Director, the third win of the night.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Although press around the world predicted at least one win for "Parasite" - Best International Feature Film seemed the surest bet - the other three wins were a sweep few expected, particularly Best Picture. "When I was young and studying cinema, there was a saying that I carved

Guide to Korean

▶ SUBWAYS & TRAINS

Tickets can be purchased at machines near the subway entrance. As of 2013, a deposit fee of 500 won is charged for the card. After selecting your destination, the machine will request a cash payment. The cost of the trip will depend on the distance, but the base fare for adults is 1,050 won for the first 10 km. You can get a refund for the 500 won deposit after your trip at one of the deposit refund machines. Seoul Metro English website: <http://www.seoulmetro.co.kr/eng/>

subway station 지하철역 jihacheoryeok

English subway map 영어 지하철 노선도 yeongeo jihacheol noseondo

a single journey ticket 1회용 교통카드 ihoeoyong gytongkadeu

ticket vending machine 교통카드 충전기 syotongkadeu chungjeon-gi

card deposit refund machine 보증금 환급기 bojeunggeum hwangeupgi

Could I have an English subway map, please? 영어 지하철 노선도 좀 주주세요.

Yeong-eo jihacheol noseondo jom juse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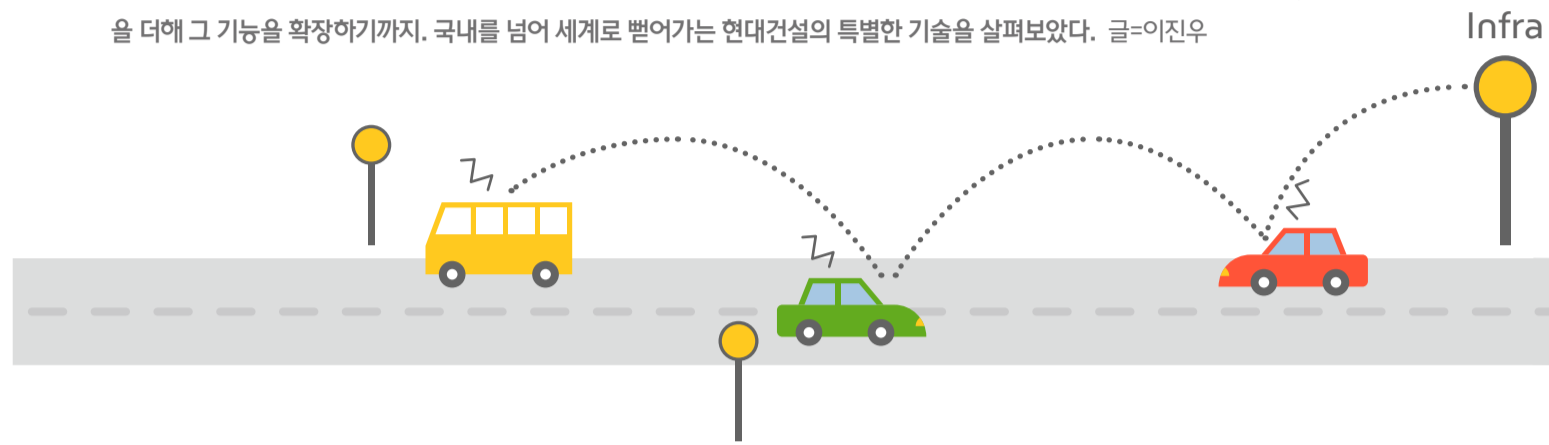
Which line should I take to go to Jongno? 종로에 가려고 하는데, 몇 호선을 타야 하나요?

jongno-e garyeong haneunde, myeot toseoneul taya hanayo?

FAN ILLUSTRATED GUIDE TO KOREAN! Chad Meyer and Kim Moon-jung

오늘 출근길, 당신이 만난 현대건설의 기술은 무엇인가요?

H테크놀로지 우리는 매일 수많은 길을 지난다.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평범한 길이라도 그에 적용된 다양한 기술이 우리의 빠르고 편안한 이동을 돕는다. 현대건설은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엇단 길을 내고, 최첨단 기술을 더해 그 기능을 확장하기까지,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현대건설의 특별한 기술을 살펴보자. 글=이진우



차량정보이용 노면상태 예측시스템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예측·공유해 빗길이나 빙판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 *도로기상정보시스템(RWIS·Road Weather Information System) 설치 구간에서만 감지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RWIS에 차량 센서(외기온도정보)와 기상청 데이터(기온·습도·일사량 등)를 더해 터널이나 음영 구간의 제약 없이 모든 도로의 노면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적용 현장 | 제2영동고속도로

도로, 첨단 기술로 세상을 연결하다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지능형 교통제어시스템)

ITS는 실시간으로 차량의 흐름을 조절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 이는 과학적이고 자동적인 교통 운영을 위해 교통 체계에 전자·정보·통신·제어 등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 기존에는 도로 인프라로 수집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했다면, 이제는 *차량 환경용 무선 접속(WAVE-Wireless Access in Vehicle Environment)과 연계해 차량-인프라, 차량-차량 간에 공유한 정보로 운전자의 개별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 회사는 현대모비스·현대오일뱅크·현대엔솔·현대엔솔·현대엔솔 등 그룹 계열사와 함께 건설 기술과 차량 기술의 융합으로 스마트 도로 건설의 선두에 있다.

스마트톨링
최근 이슈인 스마트톨링은 카드-단말기 간 통신이 아닌 차량 번호 인식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기술이다. 기존 유인 요금소나 하이패스와는 다르게 서행하거나 정차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요금소 주변의 소음이나 먼지를 줄인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직은 개인정보보호법, 고용차출 효과 저해 등 사회적 연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적용 예정 현장 | 서부간선 지아도로, 서울 제물포터널, 쿠웨이트 자베르 코즈웨이, 승학터널

기상 대응형 가변속도제어 서비스
안개나 자주 발생하는 교량 위, CCTV나 구간 단속으로 사고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회사는 *WAVE+*RWIS+VSL(Variable Speed Limits·가변속도제한)을 적용한 교량 안전 특화 서비스로 지밀한 예방책을 마련했다. 이 기술을 통해 기상 조건에 따른 가시거리를 체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가변속도 정보를 제공해 안전 운행을 돕는다.
적용 현장 | 행정중심복합도시 금빛노출교 및 5생활권 외곽도로



터널 내 2차 사고 방지 서비스
GPS가 닿지 않는 터널 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우리 회사는 차량에 설치된 차량진단·감시 모듈(OBD·On-Board Diagnostics)로 데이터를 무선 송수신해 교통 흐름과 사고 특성을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통해 터널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에 감속/주의 운전 또는 긴급대피/후회 등을 안내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적용 현장 | 불모산터널

터널 그리고 지하철, 새로운 길을 창조하다

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

발파로 굴진하면서 암반 또는 지반 중 지하 공간 주변에 링(Ring) 모양의 지지 구조체를 형성하는 시공법. 스킨트(암속 공기)를 이용해 시공면에 분사하는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와 록볼트를 설치해 지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시공할 때 지반 조건에 크게 제약받지 않고 시공 중 계층을 통해 주변 지반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적용 현장 | 보령~태안 애저터널,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서부간선 지아도로, 서울제물포로지아와, 이천~문경 간 철도,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소사~원시 복선전철, 경의선 용산~문산 간 복선전철

NATM 공법속에 숨겨진 현대건설만의 특허 및 신기술

지능형 멀티 그라우팅 시스템 (IMG-Intelligent Multi grouting system)
6개 공을 동시에 주입할 수 있는 기술로 지반이 갈라지거나 들뜨지 않도록 주입 압력 등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가압지보 터널공법 (PSTM-Pressurizing Support Tunneling Method)
작업 공간 내부에 보강 구조체를 형성해 굴착 시 지반 침하 억제 및 복원 가능하다. 기존 상부 도로나 철도를 그대로 운용하면서 그 아래에 터널을 뚫을 때 사용한다.

스킨트 공법 (슬래그 스킨트 공법+스킨트 유량연동 분말형 급결제 자동제어 분사시스템)
콘크리트 공급량에 맞게 급결제를 일정 비율로 자동 투입해 고품질의 스킨트를 균일하게 분사한다. 발전 폐기물인 슬래그를 활용에 친환경적이다.



TBM(Tunnel Boring Machine)

원통형 굴착기로 굴착과 버려(잡돌) 처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터널을 완성하는 공법으로, 발파를 하지 않아 진동과 소음이 적다. 지하수의 수위 저하를 막고 분진, 오염 물질 발생이 거의 없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공법으로 꼽힌다. 우리 회사는 세계적인 기술력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시험 장비들을 보유해 국내외 많은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적용 현장 | 대곡~소사 복선전철, 싱가포르 MRT동부선 T308공사, 중앙선 도수터널, 싱가포르 MRT6 C931, 싱가포르 남부 전력구 NS3공사,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 3호선,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역정선, 고속도로 제400호선 김포~파주 2공구

TBM 공법속에 숨겨진 현대건설만의 특허 및 신기술

디스크 커터 마모 시험기
TBM 디스크 커터 마모도 측정용 통해 정확한 커터 교체 시기와 위치를 예측한다.

회전식 암석 절삭 시험기
TBM의 디스크 커터가 암반을 굴착할 때의 메커니즘을 모사해 실제 암석을 굴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장비.

Micro EPB (토암 균형식) TBM
EPB TBM을 약 10분의 1 크기로 축소한 장비. 실제와 비슷한 조건의 실험을 통해 주요 굴진 변수를 예측할 수 있다.

토사 지반 EPB TBM 모사 장비
TBM이 토사 지반을 굴착하는 메커니즘을 모사한 굴진 장비. TBM 굴진 성능, 마모도 평가 장치 및 배출 토사의 전단강도 측정 장치를 특이로 등록했다.

암반용/토사용 TBM 최적운전시스템 및 최적운전 방법
굴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굴진변수 변화값을 TBM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물 위를 가로지르는 또 다른 길, 교량을 세우다

초장대 케이블 가설장비 신공법

우리 회사는 초장대 현수교의 주케이블 시공을 위해 조립식 평행선 스트랜드(PPWS-Prefabricated Parallel Wire Strand) 케이블과 가설 장비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강선을 하나하나 현장에서 공중 가설하고 묶는 기존 AS(Air Spinning) 공법을 개선한 방법이다. 일정한 갯수의 강선을 공장에서 미리 육각 형태로 묶어 스트랜드로 만들고 현장에서 이를 조립해 주케이블을 완성하므로 품질 관리가 용이하고 가설이 쉬우며 기후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적용 현장 | 울산대교, 터키 보스포루스교, 칠레 차카오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박스거더 공법

현장에서 폼 트래블러(Form Traveler)에 지지된 폼을 이용해 콘크리트 박스를 하나씩 만들고 케이블을 설치하여 교량상판을 연속적으로 완성하는 공법이다. 콘크리트 사장교에 주로 적용한다.
적용 현장 | 고덕대교, 화명대교, 화양대교

FSLM(Full Span Launching Method) 공법

1경간(교각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상부 구조물 전체를 제작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 설치할 위치로 이동시켜 한 번에 거처하는 공법이다. 해당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거대한 해상 크레인(Floating Crane)이나 론칭 갠트리(Launching Gantry) 등 특수 제작한 기계 장비를 이용한다. PSM(Precast Span Method)으로도 불리며 철도교, 해상교량 등 긴 교량에 적용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적용 현장 | 경부고속철도, 쿠웨이트 자베르 코즈웨이

강재 케이스 튜브 가물막이 공법(CT 공법)

교량 기초 등의 수중 공사를 할 때 건설 상태의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가물막이 공법 중 하나. 강재 케이스에 설치된 고무 튜브를 수중 구조물에 밀착시키고 고무패킹재를 수중 저면에 시공된 레벨링 콘크리트에 압착시켜 외부 유입수를 차단한다. 수중에서 수질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적용 현장 | 구리암사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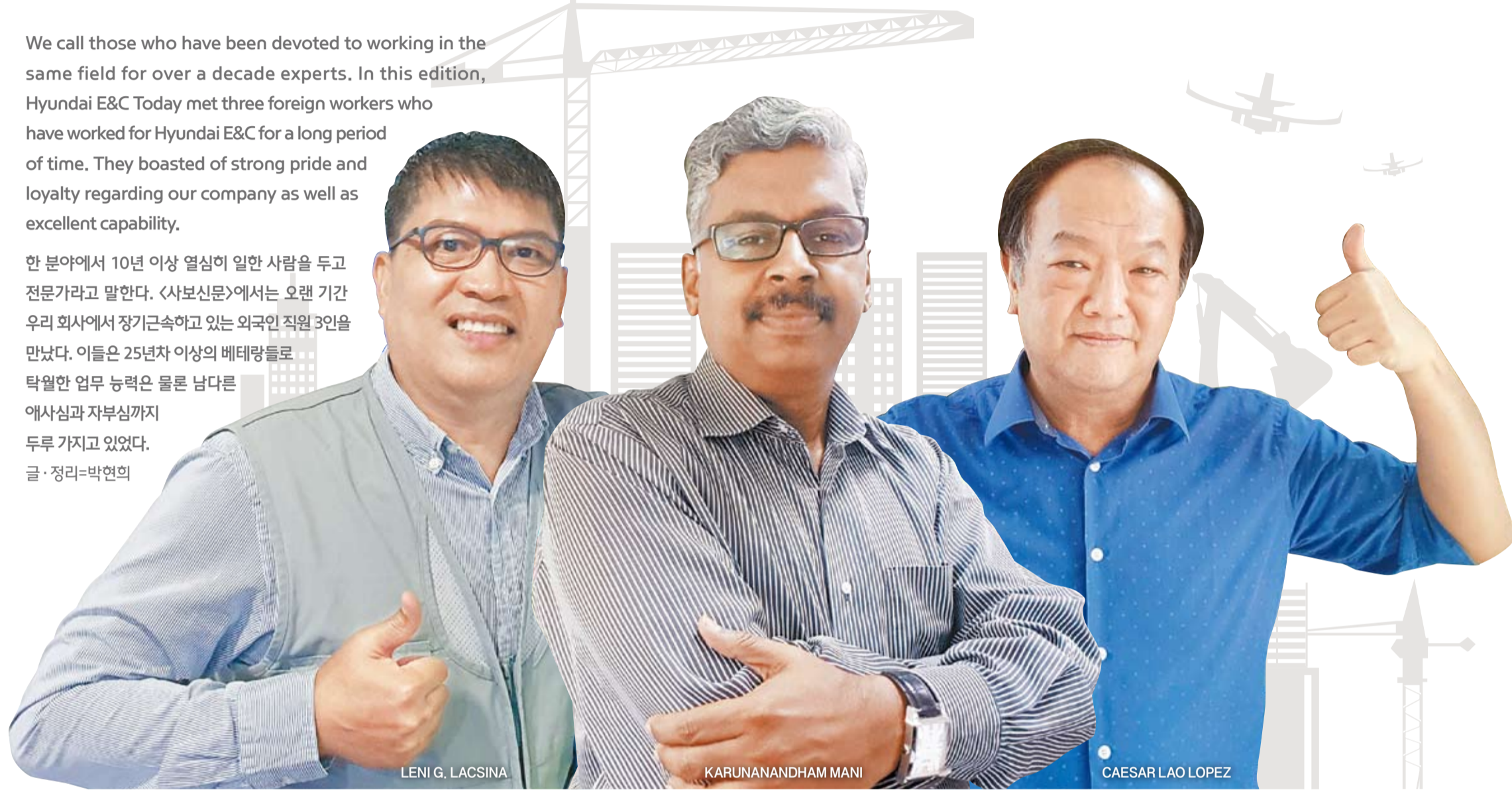


외국인 직원들과의 3인3색 인터뷰

Interviews with three global workers who have been with Hyundai E&C for over 25 years

We call those who have been devoted to working in the same field for over a decade experts. In this edition, Hyundai E&C Today met three foreign workers who have worked for Hyundai E&C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y boasted of strong pride and loyalty regarding our company as well as excellent capability.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열심히 일한 사람을 두고 전문가라고 말한다. <사보신문>에서는 오랜 기간 우리 회사에서 장기근속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 3인을 만났다. 이들은 25년차 이상의 베테랑들로 탁월한 업무 능력은 물론 남다른 애사심과 자부심까지 두루 가지고 있었다. 글·정리=박현희



Questions

- Q1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And what is your job at Hyundai E&C?
- Q2 What do you think of the potential of Hyundai E&C? What drove you to work for Hyundai E&C for long years?
- Q3 What are your strengths as a member of Hyundai E&C?
- Q4 What efforts do you make to improve your work capability?

- Q1 자기소개와 더불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해 달라.
- Q2 당신이 생각하는 현대건설의 저력은 무엇인가? 장기근속을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도 궁금하다.
- Q3 현대건설 일원으로서 당신의 장점은 무엇인가?
- Q4 업무 능력 강화를 위해 무엇을 노력하고 있나?

Offshore surveying LENI G. LACSINA

29 years, Tuas Finger One reclamation site in Singapore



우리 회사 싱가포르 해상 프로젝트 현장에 두루 몸담은 LENI G. LACSINA 과장. 그는 해상 측량(물량 정산) 분야에서 남다른 역량을 발휘 중이다. 해상공사에서 준설·매립·호안(제방을 태풍 등에서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은 측량에 따라 원가가 크게 좌우되는데, 그가 이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 덕분에 현장(싱가포르 투아스 핑거원 매립공사)은 최소 물량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A1 As a survey manager, I am responsible for controlling the proposed reclamation at Tuas Finger One (sipol) site and reclamation and marine works at Tuas western coast (SITU) site in the west of Singapore. I arrange daily schedules of surveyors, monitor survey progresses, calculate monthly volume claims and attend meetings organized by both our departments and clients.

A2 Hyundai E&C is one of the top global builders in the world. Based on Hyundai E&C's expertise, a number of construction projects were successfully conducted ranging from harbors, terminals, bridges, highways, and dams to nuclear power plants, petrochemical facilities and high-rise buildings. Hyundai E&C has huge strength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since it has a global presence in many countries like the U.S., UK, the Middle East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When I joined Hyundai E&C, I had only limited experience in the field, but my Korean colleagues trained me until I could independently work with confidence. They gave me opportunities to learn and prove that I could handle my job. That's my reason why I continued to work for our company.

A3 I always strive to plan carefully and manage the site surveyors to help them conduct their surveying works. I always attempt to advise the project team with regard to what equipment we can use to save costs and avoid loss of time. I believe time is money. If we delay, we must consider the resulting losses. I always consider our resources which we could save without delays. In the reclamation projects, the quantity of materials is very important, and to avoid their losses, I always update the construction teams by showing the updated monitoring surveys. In addition, I always communicate with the clients about survey quantity progress claims on time, and explain the purposes of the claims in advance, so that the clients already have relevant knowledge, leading to avoiding unnecessary delays.

A4 For me, every day is challenging. I do my best to attend seminars and study sessions to improve my expertise in engineering and in survey methods using new technologies. It is better if you have multiple skills. You can have an option if there are any changes in your position. I started taking the Part time Diploma concerning geospatial information & technology at BCA Academy in Singapore.

Finance & Accounting KARUNANANDHAM MANI

26 years, Al Khobar Branch Office in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 알코바지사 소속의 KARUNANANDHAM MANI(이하 'K MANI') 과장은 우리 회사에서만 26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외국인 직원이다. 세무와 회계 분야에서 남다른 실력을 갖춘 그는 사우디의 수많은 은행과 교류하며 회사의 이익과 주주 영업에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일원임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K MANI 과장은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동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한다.

Substation engineering CAESAR LAO LOPEZ

25 years, 230kV-substation renovation site in Myanmar



CAESAR LAO LOPEZ 과장은 중동·아시아 등 우리 회사 변전소 프로젝트를 다수 경험한 변전 엔지니어다. 기술 설계 검토, 엔지니어링 솔루션 개발, 발주처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두루 갖추며 변전 분야 핵심 전문가로 인정받았다고. 8개월 전 미얀마 현장(미얀마 230kV 변전소 개·보수 공사)에 부임했다는 그는 현장 엔지니어들의 기술 지원과 품질관리 등을 통해 능력을 펼치고 있다.

A1 For the last 20 years, I worked with several EHV & HV(Extra High Voltage & High Voltage) substation projects in Abu Dhabi and UAE as an electrical engineer. I was assigned to review Manufacturer's drawings, coordinate with all stakeholders and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to site engineers. I am primarily involved in technical planning and design

A1 I am working for Saudi Arabia's Al Khobar Branch Office. I am responsible for finance, accounting and taxation. I arrange necessary banking-related facilities for new projects.

A2 The brand name and the timely completion of projects with impeccable quality! Above all, Hyundai E&C has a wide range of dedicated and efficient workforce. Hyundai E&C's employees are very professional and friendly at the same time. I learned a lot after joining our company. It shaped me as a professional over the years. Moreover, the work attitude of the staff as well as the management impressed me a lot.

A3 I know what I am doing and always do what is in the best interest of our company. For example, my team concluded a financing deal with a local bank to execute a new project. The commission is the lowest in the market. Also, I am making deals regularly with the banks to apply a preferential rate for payments in currencies other than Saudi Riyal.

A4 In order to satisfy dynamic business needs, I am constantly updating my knowledge. I use the technology to catch up with what is currently happening in the finance industry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the Saudi tax department is active in issuing new directives as part of its plan to achieve the Saudi government's "Vision 2030 program." I work with our tax consultants to better understand the new rules and to protect our company from any tax exposure.

I have worked with 230kV-substation renovation project(MYSI) site for eight months and I was responsible for reviewing technical designs, devising engineering solutions and executing plans to minimize delays to the work progress in order to meet client's requirements.

A2 The strengths of Hyundai E&C lie in the collective efforts of its management and all the employees to reach a higher level of excellence. What really drove me to work continuously with Hyundai E&C is the chance to become a well-rounded substation engineer. With Hyundai E&C, one never stops learning. As long as you are willing to work the extra miles, you are given the opportunities to develop your potential and gain experience of working with experts in different engineering fields.

A3 I have accumulated extensive work experience in substation engineering. Throughout my work career with Hyundai E&C, I contributed my fair share of creative solutions that led to savings in terms of costs and schedule. However, I cannot call these successes my own since the outcome could only be attained due to the concerted efforts of my team members to achieve our target objectives.

A4 1) Avoiding multitasking: Just work on one activity at a time to focus on the task at hand. 2) Proper delegation: Be aware of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team members to delegate a task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3) Updating my work-related knowledge by reading a lot of new technical bulletins and system manuals. 4) Drawing up my to-do list every week, and creating feedback links. 5) Being helpful to your colleagues. 6) Mastering the technique of breaking down complex problems into challenging yet achievable tasks.

TIPS 외국인 직원들이 말하는 "한국인 직원과 잘 지내는 방법"

"How to get along with Korean staff," say foreign employees with a long period of experience at Hyundai E&C

What is necessary to settle down with Korean companies, Koreans and especially Hyundai E&C? Our global workers, best-adjusted to Hyundai E&C, introduce useful tips to get along with Korean colleagues.

K-MANI says, "Being sincere is important. Always be ready to changes."

Be sincere to your work and to your company. If you make a mistake, do not hesitate to accept and find how to rectify it. Korean colleagues always appreciate true professionalism.

LENI G. LACSINA says, "I respect Korean colleagues. Never lie!"

Looking back on my experience with Korean colleagues, they are very supportive on my work and they try to fully support for even my fellow staff. Koreans consider respectful attitude important: When you meet

them, just exchange nods as a greeting. As for body posture, if they give something to you, receive it with your two hands and always reply them thank you. If you make a mistake, just apologize it and be true to yourself. Don't lie! We can't solve the problem if you lie.

CAESAR LAO LOPEZ says, "Regularly attend informal get-togethers and be more professional."

To foster close camaraderie with Korean colleagues, you had better attend informal get-together meetings regularly. Be more professional, based on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traditional Korean value of hard work deeply rooted in Hyundai people and of caring for all the employees as members of one big family named Hyundai. Personally, I am Hyundai in my heart and in my mind. People call me by the nickname of Mr. Hyundai, and I am proud of it. I look forward to having a chance to leave my legacy in this company.

Mini Interview

"We are all one team under the name of Hyundai E&C"
Interview with person in charge of Global HR

인사실 인력운영팀 인터뷰
"현대건설이란 이름으로 모인 한 팀!"

We can hardly imagine Hyundai E&C without our global employees. How many foreign workers do currently work for Hyundai E&C? Here are Q&A's with Human Resources Operation Team. 현재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은 얼마나 될까. 여러 궁금증을 인력운영팀에 물어보았다.

Q. How many foreign employees do currently work for Hyundai E&C (우리 회사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직원의 수가 궁금하다.)

About 1,800 Foreign Staff are working in the headquarters, overseas sites and branch offices. 약 1800여 명의 외국인 직원이 본사, 해외 현장 및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Q. What areas do they work primarily in? (주로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나.)

When we receive a project in a foreign country, global employees work with us - whatever country it is. Their jobs are not limited to specific areas or types of construction. Our foreign employees are also making their all-out efforts to successfully complete projects in all areas such as construction, safety, quality,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우리 회사 해외 현장에는 언제나 외국인 직원이 함께한다. 특정 분야나 공종에 국한되지 않는다. 외국인 직원들 역시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시공·인전·품질·관리·공무 등 전 영역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Q. What support does Hyundai E&C provide to help them develop their capability and increase a sense of belonging? (우리 회사는 외국인 직원들의 역량 개발, 소속감 강화를 위해 무엇을 지원하고 있나.)

Hyundai E&C offers online contents specially designed to train our foreign workers with regard to project contract, quality, safety, scheduling and risks in order to enhance their capability. Starting in August, mobile-based contents will be provided. In addition, we select excellent foreign employees as Global Talents and apply a similar personnel management system to the one for their Korean counterparts. With an aim to foster the Global Talents in the long term, we operate a work rotation system between the headquarters and overseas construction sites. 우리 회사는 외국인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공사 계약 ▶품질 ▶안전 ▶공정 ▶리스크 등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 8월부터는 모바일로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역량이 우수한 외국인 직원의 경우 핵심인재(Global Talent)로 선정. 한국인과 유사한 인사관리 제도(직위/직책 부여)를 적용하고 있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본사-해외 현장 간 순환 근무 제도도 운영 중이다.



원활한 소통의 ‘Speak Out’ 대화법

H테라피 직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직원이 몇이나 될까.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피력하는, 잘 말하는 사람들의 ‘말 비법’을 소개한다. 글=오수형(SHO대화심리연구소 소장)

‘말은 인류가 사용한 가장 효력 있는 약이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우리는 평소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 약이 되는 말은 상대에게 기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독이 되는 말은 상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다. 더군다나 여러 인간관계가 얽혀 있는 조직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대화의 기본 전제는 나이와 직위를 막론하고 구성원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조직 내 원활한 소통 문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기본 덕목과 스킬을 기억하자.

기초부터 탄탄히, 대화의 시작은 ‘경청과 공감’

많은 이들의 고민 중 하나는 ‘내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실 대화에서 ‘유창한 화법’은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하루를 되돌아보자. 아마 가족과의 대화보다 직장 동료와 나는 대화가 훨씬 많았을 것이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 한마디에 동료가 상처 받았을지도, 혹은 무신경한 후배의 말투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이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꼽는 대화의 기본 덕목은 ‘경청과 공감’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다른 의견도 존중할 수 있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됐다. 조직에 대한 신뢰감과 심리적 안정감까지 조성하는 ‘경청과 공감’을 갖췄다면, 본격적인 실천의 ‘대화 스킬’로 들어가 보자.

실전 대화법의 정석

양방향 소통과 수평적 관계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대화는 ‘탁구’다. 일방적인 말하기가 아니라 공을 주고받는 것과 같이 양방향 소통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직장에서 일방적인 말하기를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주로 상사와 부하 직원의 대화로 소통이 단절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일방적인 대화는 ‘지시명령형’ ‘훈계설교형’ ‘단정평가형’ ‘취조탐색형’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하단 표)

이러한 화법만 조심해도 그 누구와의 대화도 부드럽게 이어나갈 수 있다. 더 나아가 원활한 쌍방향 소통을 원한다면 상대를 수평적인 관계로 대해야 한다. 특히 부하 직원과 단절되지 않은 대화를 하고 싶다면 아래 네 가지 방법을 기억하자.

- 1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 버리기 (ex. 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 조직에 맞지 않다 생각했는데 이런 관점에서도 상황을 볼 수 있구나!)
- 2 혼자 말 하지 않고 의견 물어보기 (ex. 이번 프로젝트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 3 업무 외에도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 화제 삼기 (ex. 오스카 상을 찍었던 기생충 영화 봤니?)
- 4 직원의 반응에 신경 쓰고 역반응 해주기 (ex. 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신경 썼구나. 고생했다)

이렇게 상사가 부하 직원을 배려해 대화를 시도했다면 부하 직원 역시 역사사지의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 스킬로 중지부를 찍어보자.



아부와 다른 감사 표시는 꼭!

대화 심리학자들은 “감사합니다” “고맙네”와 같은 감사 인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심기일전해 업무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어려운 상하관계라고 해도 서로에 대한 감사 표현, 긍정적인 반응이 꼭 필요하다. 옛 속담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표현이 있다. 아무리 상사일지도 칭찬과 감사 표현을 결코 싫어하지 않을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할수록 서로 좋은 기억이 쌓이게 됨을 기억하자. 다만 감사와 아부는 결이 다르다.

동기부여가 되는 말 건네기

표현이 서투른 사람이라면 따뜻하고 힘이 되는 말을 상대에게 건네는 게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직장 내 상하관계라면 더욱. 주로 상사는 지시를 내리고, 성과를 관리하며, 결과에 대응하다 보니 아래 직원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동기부여를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것이 ‘말’이다. 실제로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밝힌 말은 “자네라면 잘할 거야” “최고야” “결과는 격조மா” “잘했어” “수고했어” 등이다. 말 한마디가 가진 힘을 간과하지 말자.

Speak Out을 위해 버려야 할 ‘말 습관’

대화의 기초부터 실천 스킬까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배웠다’고 끝이 아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나쁜 말 습관도 버려야 직장 내 원활한 소통 문화를 만들어 Speak Out 할 수 있다. 동료 간의 대화에서 갈등을 만들지 않는 핵심이 ‘공감’ 대화법이다. 많은 이들이 들어봤을 법하지만 알고도 실천하기 어렵다. 공감의 부재는 크고 작은 갈등의 씨앗을 만들 수 있다. 반드시 버려야 할 나쁜 말 습관 다섯 가지는 아래와 같다.

- 1 충고하기
- 2 지적하기
- 3 자기 말만 하기
- 4 조사, 신문하기
- 5 말 끊어버리기

아무리 노력해도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말투’를 바꿔보자. 머리로는 경청과 공감, 화제 공유하기 등을 생각하지만, 배려 없이 무심코 툭 던진 말이나 어투로 상대의 오해를 살 수 있다. 아무리 말로 “당신을 배려한다”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합의점을 도출해 보자” 라고 하더라도 작은 제스처, 말투, 말버릇 등이 만들어 낸 불협화음에 상대는 대화의 벽을 느낄 수 있다.

지양해야 할 일방적인 대화 유형

지시명령형	불통(不通)의 아이콘이다. ‘내일 아침까지 해내!’와 같은 강한 명령조의 말을 주로 한다.
훈계설교형	밀레니얼 세대가 말하는 훈이꾼대들의 대화 시작법이다. ‘나 때는 말이야’와 같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장 연설을 한다.
단정평가형	선입견을 갖고 대화하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를 보니 딱 김 과장이 쓴 걸 배웠네!’와 같이 단정적으로 평가하는 대화법이다.
취조탐색형	업무에서는 ‘이거 직접 한 거 맞아?’와 같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주말에 뭐 했냐?’와 같이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살살이 캐물어 본다.

호흡기 통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핵심 키워드, '집단면역' 높이기

건강칼럼 '코로나19', 일명 '우한 폐렴'. 중국 우한으로부터 날아온 신종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비상에 걸렸다. 호흡기를 통한 감염병은 숨 쉬고, 식사하고, 이동하는 일상 속에서 특별한 원인을 인지하지 못하고 걸릴 수 있는 만큼 개개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위생 관리로 집단면역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한다. 글=노진섭 의학전문기자

호흡기 바이러스, 누구나 낀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다. 기온이 낮은 시기에 활동하므로 특히 겨울철은 이른바 '바이러스 시즌'이다. 사람은 반대다. 추운 날씨를 잘 견디지 못해 실내 난방을 한다. 이 때문에 겨울에는 실내외 온도 차가 크고 우리 몸은 그 기온차에 적응하느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 게다가 건조한 날씨로 호흡기 내 점막이 마르면 바이러스의 침투에 더욱 취약한 상태가 된다.

이러저래 약해진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감염병을 일으킨다. 가장 흔한 감염병은 감기다. 원인 바이러스는 200가지가 넘지만 어떤 바이러스든 감기는 기침과 콧물과 같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심하지도 않다. 며칠 쉬면 저절로 낫는 데 반해 독감은 병원균이 감기와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병한다.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갑자기 나타나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해진다. 폐렴은 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 원인이 다양하다. 독감의 대표적인 합병증도 폐렴이다.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누령고 냄새 나는 가래와 숨찬 증상이 동반하는 특징을 보인다. 심하게 아픈 증상이 지속되면 폐렴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는 게 좋다.

문제는 이들 감염병이 한 개인에게만 발병했다가 사라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점이다. 이번에 창궐한 코로나19 감염증도 많은 사람에게 전염돼 큰 피해를 입혔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등 공신은 '집단면역'이다. 감염병이 기승을 부려도 이 병에 면역력을 얻는 수가 늘어나면, 지역사회 전체의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감염병이 사그라든다. 집단면역을 높이기 위해 인류가 개발한 것이 백신으로, 백신을 접종해 독감과 폐렴으로 인한 입원·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백신보다 더 중요한 예방 수단은 이른바 '셀프 백신'이라 불리는 개인위생이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 패러티 이버 코로나19 사태에도 세계보건기구(WHO)나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 집단에서는 개인위생을 가장 강조했다. 집단면역을 높이기 위한 3대 개인위생법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공중 매너'다.

감염병 예방 제1원칙 '손 씻기'

병원균이 피부에 묻는다고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점막을 통해 신체 내부로 침투해야 발병한다. 점막이 있는 부위가 주로 눈·코·입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손으로 눈·코·입을 만진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위원회 위원장)는 "폐쇄회로CCTV 등으로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 1시간에 눈·코·입 등 얼굴을 20차례 이상 만진다. 이런 습관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손 씻기 방법은 비누를 이용해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씻는 것이다. 손만 잘 씻어도 감염병의 70%를 예방한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 확인됐다.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을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씻으면 세균이 99.8% 제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손은 병원균 아니라 온갖 물질로 인해 더러워진다. 외부에서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상황이 안 된다면 매장 등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임시방

편으로 사용하면 된다. 물티슈는 알코올 성분이 없으므로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죽이지는 못한다. 에스컬레이터나 문의 손잡이 등을 만졌을 때 물티슈로 손을 닦아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다.

침방울 막는 데는 면 마스크도 효과적

코로나19는 감염자가 말하거나 기침할 때 분사되는 침방울로 확산한다. 감염자의 침방울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은 첨단 의학 기술이 아니라 개인위생이다. 가장 쉬운 방법이 마스크 착용이다. 더구나 건조한 계절에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기 주변 습도가 높아져 점막이 마르는 현상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은 의료용 마스크를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정상적으로 폭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나왔다. 침방울을 막는 것은 일반 종이나 천으로 만든 마스크도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반 마스크는 의료용 마스크보다 치밀하지 않아 그 사이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양이 매우 적어 감염병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강희철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감염병은 병원균의 총량과 관련이 있어서 그 양이 적으면 발병하지 못한다. 침방울처럼 바이러스 덩어리가 있어야 감염증이 발병한다. 천 마스크는 삶아 소독하면 재사용할 수 있고 굳이 삶지 않더라도 햇볕에 잘 말리지만 하면 병원균은 죽는다"고 설명했다.

기침 예절 등 공중 매너가 중요한 시기

감염병 확산을 막는 또 다른 방법은 공중 매너다. 대표적인 것이 기침 예절이다. 어떤 이유든 기침이 나오면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마스크가 없다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을 가려야 한다.

입을 가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뒤통수다. 손으로 입과 코를 가렸다면 손을 즉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는 게 좋다. 물이 없다면 손 소독제나 물티슈로 즉시 침방울을 제거해야 한다. 손수건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렸다면 휴지는 버리고 손수건은 잘 세탁해야 한다.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했다면 옷을 세탁하는 게 바람직하다. 겉옷이어서 자주 세탁할 수 없는 경우 매일 옷을 갈아입기라도 해야 한다. 옷에 묻은 바이러스는 대체로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자신에게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 자가격리하는 것도 지역사회에 바이러스 전파를 줄이는 방법이다. 물론 호흡기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모두 코로나19 감염증은 아니며 일반 감기나 계절성 독감일 가능성도 크다. 증상이 심해 너무 힘들면 병원에 찾아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집단면역 높이기' 궁극적 타짜!

Q 외부 화장실 비누는 더러울까?

외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병원균이 묻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누가 질병을 옮기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됐다. 1965년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손에 대장균과 포도상구균 등 병원균 50억 마리를 묻힌 후 손을 씻었다. 이들은 비누 한 개를 번갈아 사용했다. 그 결과 병원균은 비누를 통해 전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1988년 재차 확인됐다. 실험 참가자들은 수도나 손잡이 대장균 같은 병원균을 주입한 비누로 손을 씻었지만 손에서 유의미한 수치의 박테리아는 발견되지 않았다.

Q 손 소독제 vs 물과 비누

손 소독제(손 세정제)를 맹신하는 사람이 있다. 실제로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것보다 손 소독제가 손의 병원균을 죽이는 데는 확실하다. 에탄올 성분의 손 소독제는 본래 이 환자 저 환자를 접촉하면서도 그때마다 손을 씻기가 번거로운 의료인을 위해 개발됐다. 일반인도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게 이로운가? 2019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실험을 해봤다. 대장균으로 오염된 손을 비누와 물, 손 소독제, 물티슈, 흐르는 물로 각각 씻도록 했더니 비누와 물을 사용한 세균 제거율이 9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손 소독제 95%, 물티슈 91%, 흐르는 물 30초 91%, 흐르는 물 15초 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Q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은?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덮고 얼굴과의 사이에 틈새가 없게 밀착해야 효과적이다. 숨 쉬기 어렵고 입만 가리고 코는 내놓으면 마스크를 사용하나 마나라는 얘기가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마스크를 코까지 가리고 쓴 사람은 메르스에 걸리지 않았지만 입만 가린 사람은 감염된 사례가 있다. 또 일단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손으로 마스크 표면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감염자의 침방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스크 표면에 묻어 있다면 이런 행동만으로도 병원균에 감염될 수 있다. 마스크를 벗을 때도 끈을 잡아야 한다. 무심코 마스크 표면을 만졌다면 반드시 손을 씻는 게 안전하다.



카피라이터 정철의 통찰과 직관으로 완성된 세상 단 하나뿐인 사전!

피플인사이드 언제나 '사람'을 먼저 이야기해 온 카피라이터 정철이 사람 사는 세상, 우리네 인생을 일상 단어 1234개에 비추어 읽고 또 썼다. 출처=채널에스 인터뷰 중



올해로 경력 35년차인 카피라이터 정철. 35년간 수천 개의 카피로 온 국민을 울리고 웃기며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정철의 카피에는 언제나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겼다. 그런 그가 단어에 '사람'이 담긴 특별한 사전을 펴냈다. 평범한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사물과 단어 1234개를 정철만의 시선과 감성으로 재해석해낸 것. 국어사전은 알려주지 않는 단어 뜻 너머의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긴 특별한 사전을 만나보자.

세상에는 수많은 사전의 종류가 있지만 『사람사전』은 처음인데요.

이 사전에서 사람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모든 생각의 주어. 모든 행동의 목적어. 모든 인생의 서술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희로애락은 모두 사람과 영겨 있고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다시 사람 덕분에 그 아픔에서 벗어나죠. 사람이 병이자 약입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도 사람이라는 잣대를 들고 다시 들여다 보면 그 속엔 무궁무진한 사람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꼬집어내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고, 웃고 싶었습니다. 독자가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면 책이 할 일은 다한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쓴 모든 책은, 이 한 권을 쓰기 위함이었다”고 할 정도로 남다른 애정이 엮여 있는데요.

평생을 카피라이터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작가보다 정 카피라는 말을 더 자주 듣습니다. 카피라이터는 '남의 얘기를 대신해 주는 사람'입니다. 남의 얘기를 실컷 하다 보니 언제부터가 내 얘기를 하고 싶었죠. 머릿속에 들어 있는 생각을 꺼내 사람들에게 던지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 궁금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다른 생각, 시선, 글을 좋아해줘 지난 10년 제법 다양한 형식의 책을 썼습니다. 두 해 전부터 10년을 총 정리하는 책 한 권을 내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저의 생각, 관찰, 글쓰기를 스스로 크게 한번 정리해서 매듭 하나를 만들고 다음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 책으로 사전이라는 형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천 단어를 붙들고 꼬박 2년을 씨름한 결과가 바로 『사람사전』입니다. 애정은 쏟은 땀과 비례하지 않을까요.

‘세상 모든 단어에는 사람이 산다’라는 부제가 인상 깊습니다.

세상 모든 사물과 현상은 사람의 선행입니다. 무심한 척 우리 곁에 살고 있지만 저마다 가르침이 있어요. 열심히 들여다보면 그 가르침이 보입니다. 작가란 그냥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이죠. 어떤 시선이나에 따라 관찰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저는 사람이라는 시선으로 세상 단어들을 들여다보았고, 단어마다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커피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고, 우유, 텔레비전 속, 휴대전화 속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단어에는 사람이 산다'는 것을 책 한 권을

쓰며 확인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는 크고 작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1234가지 단어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단어와 가장 힘들게 쓴 단어가 궁금합니다.

무려 1234개입니다. 가장 애착이 가는 단어를 고르라는 건 제게 고통을 주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가족, 팔찌, 두부, 독서, 돈, 징검다리라는 단어 모두 강하게 애착이 갑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석했기에 애착이 가느냐고 묻지는 말고 직접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가장 힘들게 쓴 단어 역시 딱 하나를 꼽기는 어렵지만, 아픔을 이야기한 단어입니다. 아픔을 글로 쓰는 건 늘 힘든 일입니다. 힘들게 쓴 글이라 읽어내는 일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단어들과 마주해 주세요.

『사람사전』은 제목처럼 사람의 온기를 품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을 보다 재미있고 의미 있게 읽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기억’에서 ‘히읇’까지 순서대로 읽어도 좋지만, 책 맨 뒤에 붙은 찾아보기를 이용하는 것도 흥미로운 독서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소설처럼 정주행할 필요가 없니까요. 예를 들면 매일 잠들기 직전 침대에 엎드려 단어 셋만 읽겠다, 이런 독서법도 괜찮을 듯합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했던 단어나 큰 기쁨을 준 단어 셋을 골라 들여다보는 것이지요. 물론 이 책이 세상 모든 단어를 다 수용할 수는 없으니 기껏 고른 단어가 책에 없어도 모릅니다. 그럴 땐 독자가 그 단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작가의 생각을 받아먹는 독서가 아니라, 참여하는 독서가 될 테니 더욱 의미 있지 않을까요.

어떤 독자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하나요?

카피라이터 정철의 억지스러운 글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책을 읽어 달라고 해도 거절하실 테니, 저는 이 책을 읽으며 훈장말 할 사람을 독자로 모시

고 싶습니다. “아,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네” “나도 이런 접근을 한 번 해봐야지”. 글쓰기를 구경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신의 글쓰기를 위한 재료로 이 책을 씹어 먹을 사람. 이런 분들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책 제목은 『사람사전』이지만 순전히 정철의 생각을 정철 식으로 표현했으니 ‘정철사전’이라 할 수 있죠. ‘정철사전’처럼 사전 앞에 누군가의 이름이 붙은 책들이 줄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전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한 줄 카피로 소개한다면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 카피를 다시 들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사전』
세상 모든 단어에는
사람이 산다

GOEP,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룹웨어 200% 활용법

현대건설 프리미엄 이메일, 회사 소식과 주요 공지, 동료들의 경조사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접속하는 곳, GOEP(Global Enterprise Portal, 그룹웨어). 그룹웨어만 잘 활용해도 업무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사우들이 원하는 웬만한 정보는 이곳에 있다고 설명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사보신문>은 업무가 편해지는 그룹웨어 메뉴 세 가지를 소개한다. 글=박현희



ZOOM IN **진화된 업무지식포털, HMAP의 등장!**

“현장에 부임했는데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지?” “최신 규정이 궁금한데 어디서 찾아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다면 주목하자. 업무 프로세스와 각종 규정·지침 등이 공개된 HMAP(HDEC's MAP of Process & Knowledge)이 지난 1월 30일 오픈했다. HMAP은 기존 KMS(지식관리시스템), 사내표준, 건설약어사전 등이 통합된 업무지식포털로 현장 업무 절차와 동료의 노하우(지식) 등을 살필 수 있다.

STEP 1 직무 설정하기! HMAP을 활용하는 첫걸음은 '직무 설정'. 자신이 맡은 직무와 공종을 기본 설정한 후 [완료]를 클릭하면, 맡은 업무와 관련된 각종 매뉴얼과 성공·실패 사례 등을 만날 수 있다. 회사의 규정과 지침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만큼 빠른 업무 착수와 깔끔한 일처리가 가능해진다.

STEP 2 노하우 전수받기! HMAP에서 가장 '강' 같은 정보는 '기술위키'. '직무지식' '기술지식' 속 내용들이 아닐까. 그중 '기술위키'는 참여형 지식 플랫폼인 위키피디아(Wikipedia)를 차용한 것으로, 사우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누구나 수정 및 추가가 가능한 만큼 현대건설의 집단 지성의 힘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STEP 3 검색 가능 활용하기! 방대한 정보가 수록돼 있는 만큼 검색 기능도 탄탄하다. 검색만 통하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라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사 관련 각종 규정과 절차, 국내외 분쟁사례 등 회사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가 수록돼 있어 '만능 사전' 역할을 한다.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이제 초특창이 아닌 HMAP 검색창을 띄워도 좋을 듯하다.

ZOOM IN **현장 사진이 필요하다면? HDEC 포토뱅크**

현장 사진이 필요하다면 주목하자. 국내외 현장 사진부터 '현대건설 70년사' 속 사진까지 모두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 'HDEC 포토뱅크'다.

STEP 1 접속하기! 그룹웨어 메뉴 중 'Knowledge'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기록관리]가 나온다. 그 아래의 'HDEC 포토뱅크'를 클릭하면 새 창이 열린다.

STEP 2 다운받기! 'HDEC 포토뱅크'라는 새 창이 열렸다면 절반은 성공! '현장 사진' 섹션에는 국내외 해외, 사업본부별 사진이, '70년사' 섹션에는 간척지/항만, 교량, 고속도로/전철/철도 등 좀 더 세부적인 사진이 정리돼 있다. 특정 현장의 사진을 찾고 싶다면 상단 검색창에 국가명과 현장명을 입력하면 된다.

STEP 3 등록하기! 현장 공정 사진이나 완공 사진을 업로드하고 싶다면 왼쪽 상단의 [사진등록] 버튼을 눌러보자. 화면이 전환되면 분류/제목(현장명)/국가/촬영일 등 각 항목에 맞게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낱장 혹은 폴더로 업로드할 수 있으며, 사진은 고용량으로 올리는 것을 권장한다.

ZOOM IN **회사 소개 PPT, 디자인 표준 등 총망라 C.I 사이트**

현대건설 로고 다운로드부터 현장 가설·안전 사인물 디자인, 회사 소개 자료(PPT) 등 전사 표준을 모두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C.I 사이트' 이모저모.

STEP 1 회사 소개 PPT가 이곳에! C.I 사이트에서 놓칠 수 없는 메뉴, 바로 '표준 문서 양식'이다. 이곳에서는 각종 문서의 양식뿐 아니라 '회사 소개'와 '현장 소개' PPT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PPT에는 기업 소개 및 주요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STEP 2 디자인 표준 엿보기!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우들이 가장 애용하는 메뉴는 '현장 가설사인'과 '현장 안전·환경사인'일 것이다. ▶게이트 ▶펜스 ▶현장사무실 ▶현장 안팎 등의 수치화된 디자인 표준이 궁금하다면 C.I 사이트에 접속해 보자.

그룹웨어 하단에서 바로 접속! '그룹웨어 인기 검색어'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최근 3년(2017-2019년)간의 그룹웨어 인기 검색어를 소개한다.

1 비즈폰	5 아웃룩	9 공조규정
2 유류단가	6 복지도인	10 H-DOC
3 건강검진	7 좌석배치도	11 출장비 지급규정
4 사업자등록증	8 단체연차	12 SPA

[독자 참여 코너] QR코드 스캔하면 커피가 쏟아져요!

Be Together, HYUNDAI E&C TODAY!

현대건설 대표 소통 채널 <HYUNDAI E&C TODAY>가 더욱 알찬 내용을 담기 위해 '독자 참여 코너'를 신설합니다. 사보신문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QR코드'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 참여 방법** ① QR코드를 통해 '독자 참여 코너' 접속
② 간단한 설문에 응답하기(꼼꼼한 답변은 당첨 확률 up!)
③ 선물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입력
- 참여 기간** ~3월 5일(목)까지(※ 당첨자 개별 연락)
- 당첨 경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기프트콘(1잔 / 10명)

How to! QR코드 스캔? 어렵지 않아요~

예전에는 QR코드 앱을 따로 설치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 기능이 내장돼 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앱 등에서도 QR코드 스캔이 가능하죠. 그중 네이버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앱 실행 후 하단에 있는 초록색의 원 터치



렌즈 아이콘 터치



스마트렌즈가 실행되면 QR코드를 카메라에 인식. 상단에 URL 정보가 뜨면 터치해 해당 사이트로 이동



디에이치 아너힐즈 '헤리티지 가든 연하원'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중앙에 위치한 헤리티지 가든 연하원은 인근 대모산의 자연을 그대로 재현했다. 대모산의 새벽 안개에서 영감을 얻어 설치한 인공 안개(미스트 노즐)는 서어나무 숲과 자연석, 각종 식물과 조화를 이뤄 빼어난 조경미를 자랑한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 온 듯한 이곳의 산책길은 직접 거닐어도 좋지만, 커뮤니티 내 큰 파노라마 창을 통해 감상하는 것도 좋다.

우수디자인상 6관왕

집앞에서 즐기는 아름다운 자연 공간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의 필수 조건으로 각광 받고 있는 명품 아파트의 공통점, 바로 조경이다. 현대건설은 디에이치 아너힐즈를 비롯해 총 6개 작품이 우수디자인(Good Design)에 선정돼 조경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글=강은비



힐스테이트 호매실 '중앙광장'

친환경 단지로 조성된 힐스테이트 호매실은 조경 면적을 극대화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축구장을 압도하는 규모(가로 약 90m, 세로 약 130m)의 중앙 잔디광장에 미술 장식품과 조형물을 설치해 예술적 경관을 더욱 훌륭하게 연출했다. 낮은 건폐율(13%) 덕분에 중앙광장 주변이 시원하게 조성돼 단지 내 산책로를 걷는 것만으로도 여유를 되찾기에 충분하다.



힐스테이트 동탄 '물 놀이터' '숲 소풍길'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이색적 놀이터로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힐스테이트 동탄. '물 놀이터'는 티하우스와 다양한 수경시설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숲 소풍길'은 2층 높이의 숲 관찰대까지 자연과 어우러진 데크 길로 산책할 수 있는 복합 활동 공간이다.



힐스테이트 서울숲리버 '색연필 놀이터'

알록달록한 바다 길을 따라가면 다양한 색상의 조형미가 돋보이는 '색연필 놀이터'가 아이들을 맞이한다. 신체 감각은 물론 예술적 감각까지 키울 수 있는 이 놀이터의 매력은 바로 미술관 테마로 조성된 공간이다. 유명 작가의 명화와 액자 프레임 조형물을 곳곳에 배치해 어린이들이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놀면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힐스테이트 녹양역 '퍼니집 놀이터'

놀이터가 아이들만 뛰어노는 곳이라 생각했다면 힐스테이트 녹양역의 '퍼니집 놀이터'를 둘러보자.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신체특화 놀이시설 공간으로 조성됐다. 어른, 아이 모두가 신나게 놀 수 있도록 신체 조건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농구 및 축구 골대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다트판도 있다. 쉴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해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제격이다.

